

CJ제일제당, 송도 바이오연구소 건립

CJ제일제당(대표 김진숙)이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연구소를 건립한다.

CJ제일제당은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바이오연구소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700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 4공구내 2만2546m²의 부지에 연면적 3만3000m² 규모의 연구소를 2011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300명 이상의 순수 바이오분야 연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바이오분야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10여개국에 마케팅본부를 두고 있는 CJ제일제당의 입주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기업 유치에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18>